

#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이상적 신체상,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

김은주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Ideal Body Image, Body Importance and Body Satisfaction by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College Students

Eun Ju K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In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ideal body image, body importance and body satisfaction by gender role ident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323 male college students in all of Korea except Jeju province.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the questionnaires, Korean Sex Role Inventory and modified Multidimensional Body-Self Questionnaire.

**Results:** Normal shape ranked first as ideal body image in all 4 types of gender role identity. Androgyny, femininity and masculinity typ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undifferentiated type in body importance. And androgyny and masculinity typ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type in body satisfaction.

**Conclusion:** Androgyny and masculinity type were positively related to self body image, but undifferentiated type was negatively related to compared with androgyny and masculinity type. And to reinforce androgyny and masculinity in male college students,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Male, Gender role identity, Body importance, Body satisfaction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풍요로운 현대사회의 다양화, 개성화 특성에 따라 남성들의 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산업 자본주의 이후에 전통적인 남성다움의 의미와 여성다움의 의미에 대한 집착현상은 크게 줄어들어 남성의 성역할 구분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남성들의 신체상과 같은 외모관리 태도에 대하여 사회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은 남성들의 성역할정체감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지성, 2002; 이지현, 2004).

또한 요즘 들어 우리나라 사회에서 새로운 이상적인 아름다운 남성으로 나타난 신조어가 꽃미남이다. 꽃미남의 기준은 시대 따라 차이가 나 2000년 이후 꽃미남은 예쁜 남자보다 여자 같은 남자에 더욱 가깝다. 1990년대만 해도 여자와 달리 남자들 사이에선 꽃미남류 남자에 대한 거부

**Corresponding author:** Eun Ju Kim,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un, Seosan-si, Chungcheongnam-do, 356-706, Korea. Tel: 82-041-660-1074, Fax: 82-041-660-1087, E-mail: eunjkim@hanseo.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서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Hanseo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 2009.

2010년 10월 14일 접수, 2010년 11월 8일 채택

감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남자들도 꽃미남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2009년 2월 6일). 즉, 이러한 것은 남녀의 전통적 성역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생겨나는 현상으로 중성적이거나 동성애적 이미지와는 달리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수용하는 새로운 남성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의 변화 추세에서도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남성을 분류한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양성성과 남성성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최지성, 2002; 이지현, 2004),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중 남성성보다는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대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미, 2006; 공미혜와 이영숙, 2009; 성미혜, 2009). 이러한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의 변화는 남성이 추구하는 신체상이나 신체만족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남성들이 과거 성역할에 의해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짐에 따라 몸매관리 등의 외모관리 측면에서 남자를 보는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자신의 체형과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Jasmin과 Trygstad (1979)는 신체상은 개인마다 독특하며 신체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또한 신체상에는 신체 크기 기능 및 잠재력 등에 대한 태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 (김양진과 강혜원, 1996; 임경복, 2008)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스러워 하는데 특히 이상화된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외모에 불만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신체상의 불만족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불안 수준이 높으며 자기표현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 경험할 수 있다고 (장희순, 2003; 김금숙, 2004)하여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 상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들 (신혜숙과 백승남, 2003; 이원옥, 2004; 황란희, 2009)이 꾸준히 수행되어왔으나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은 도외시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자신의 체형과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점차 남성들의 신체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최지성, 2002; 이지현, 2004). 이에 따라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모관리와 성격간의 관련성으로 국한되어 미흡하고, 특히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신체상 및 신체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남성의 신체상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의 경계가 미약해짐에 따라 변화된 성역할 정체감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신체상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관련지어 신체 중요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상이 현실과 이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게 되는 남자대학생들에게 성역할정체감과 관련하여 올바른 신체상을 정립할 수 있는 상담 및 건강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과 이상적신체상,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신체에 대한 이미지모형을 통해 남자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이상적신체상을 분석한다.
-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중요도를 분석한다.
-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만족도를 분석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설계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이상적신체상,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7개 광역시, 경기, 충청, 강원, 전라 및 경상지역에 거주하는 3, 4년제 남자대학생 중 임의로 선정된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자가 보고식 설문지 370부를 배부하여 344부를 회수하였고, 최종

분석에서는 응답이 미비한 자료 21부를 제외한 총 323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 3. 연구도구

#### 1)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 도구는 Bem (1974)의 성역할검사지 (Bem Sex Role Inventory: BSRI)를 기초로 한 정진경 (1990)의 한국형성역할검사지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형성역할검사지는 남성성 20문항 (믿음직스럽다, 과묵하다, 남성적이다, 강하다 등), 여성성 20문항 (섬세하다, 어질다, 친절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등)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까지로 측정하였다.

성역할정체감유형은 중앙치 분리법 (Median-split Method)을 사용하여 중앙치를 기준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유형, 여성성 점수가 높고 남성성 점수가 낮으면 여성성유형, 남성성 점수가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유형, 여성성과 남성성 점수가 모두 낮으면 미분화유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 2) 이상적 신체상

이상적 신체상은 이경숙 (2004)이 만든 도구로 일자형, 보통형, 상체발달형과 하체발달형을 이미지모형으로 제시하여 직접 선택하게 하였다.

#### 3) 신체중요도

신체중요도는 Cash와 Hicks (1990)의 MBSR (Multidimensional Body-Self Questionnaire)의 문항 중 이지현 (2004)이 수정 보완한 신체 부위 및 외모와 관련된 총 12문항의 신체만족도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이지현 (2004)의 신체만족도와 같은 12문항에 신체만족도에 대한 척도 대신 신체중요도와 관련된 척도인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와 “매우 중요하다 (5)”의 5점 Likert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중요도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 .89$ 였다.

#### 4)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Cash (1990)의 MBSR (Mutidimensional

Body-Self Questionnaire)의 문항 중 이지현 (2004)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이는 얼굴 (얼굴생김새, 눈·코·입의 조화 등), 머리카락 (머리색, 머릿결, 머리술) 등 신체 부위별로 신체 부위 및 외모와 관련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와 “매우 만족한다 (5)”의 5점 Likert 척도법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는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에게 교육을 받은 간호학 전공학생인 연구보조원 45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보조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인접지역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린 후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이상적 신체상의 차이는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으로 Duncan test를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19세가 137명 (42.4%), 20~22세가 84명 (26.0%)이었으며, 1학년이 212명 (65.6%), 2학년이 62명 (19.2%)이었다. 거주지는 7대광역시가 117명 (36.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6명 (20.4%), 충청도 45명 (13.9%), 경상도 42명 (13.0%), 전라도 37명 (11.5%) 및 강원도가 16명 (5.0%)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제수준은 중정도가 246명 (76.2%)로 가장 많았고, 상

정도는 35명 (10.8%), 하로 인식하는 자는 42명 (13.0%)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 사항 (N=323)**

변수	구분	n (%)
나이 (세)	18	60 (18.6)
	19	137 (42.4)
	20~22	84 (26.0)
	≥ 23	42 (13.0)
학년	1학년	212 (65.6)
	2학년	62 (19.2)
	3학년	35 (10.8)
	4학년	14 (4.3)
거주지	7대 광역시	117 (36.2)
	경기도	66 (20.4)
	충청도	45 (13.9)
	경상도	42 (13.0)
	전라도	37 (11.5)
	강원도	16 (5.0)

##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이상적 신체상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은 양성성과 미분화유형이 많았으며,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라 이상적 신체상은 차이가 있었다 ( $\chi^2=24.821, p=.005$ ).

성역할정체감 4가지 유형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 신체상은 보통형이었으며, 미분화유형을 제외한 양성성, 여성성 및 남성성유형은 보통형 다음으로 상체발달형을 이상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분화유형에서의 이상적 신체상은 보통형 다음으로 일자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통형을 제외하고는 일자형, 상체발달형과 하지발달형을 비교적 골고루 이상형으로 제시하고 있어 양성성유형과 남성성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표 2).

**<표 2> 성정체감에 따른 이상적신체상**

(N=323)

변수	일자형	보통형	상체발달형	하체발달형	Total	$\chi^2$
	n (%)	n (%)	n (%)	n (%)	n (%)	
양성성	12 (11.2)	64 (59.8)	26 (24.3)	5 (4.7)	107 (100.0)	24.821**
여성성	4 (7.0)	32 (56.1)	15 (26.3)	6 (10.5)	57 (100.0)	
남성성	2 (3.6)	31 (56.4)	17 (30.9)	5 (9.1)	55 (100.0)	
미분화	23 (22.1)	45 (43.3)	20 (19.2)	16 (15.4)	104 (100.0)	

\*\* $p < .01$ .

##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중요도

신체중요도는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F=8.900, p<.000$ ). 이를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양성성, 여성성 및 남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신체중요도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신체 부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남자대학생은 전체적 외모와 키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이를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라 신체 부위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근육질 정도 ( $F=2.618, p=.051$ )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신체 부위별 중요도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양성성유형은 여성성유형에 비해 체중을, 남성성유형에 비해 체중, 피부 및 머리카락을 중요시 하며, 또한 남성성유형이 여성성유형에 비해 복부를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전체적 외모, 체격, 키, 근육질 정도, 얼굴, 상체, 하체 및 치아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양성성, 여성성 및 남성성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신체 부위별 중요도 인식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양성성유형과 미분화유형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양성성유형과 미분화유형은 전체적 외모, 체격, 키, 몸무게, 얼굴, 상체, 복부, 치아, 피부 및 머리카락에 대한 신체 부위별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즉, 양성성유형은 근육질 정도와 하체 부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신체 부위를 미분화유형에 비해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표 3).

##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F=12.952, p<.000$ ). 이를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양성성과 남성성유형은 여성성과 미분화유형에

<표 3> 성정체감에 따른 신체중요도

(N=323)

분류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F
	M±SD	M±SD	M±SD	M±SD	
총계	4.0±0.61 <sup>a</sup>	3.8±0.52 <sup>a</sup>	3.9±0.55 <sup>a</sup>	3.6±0.54 <sup>b</sup>	8.900***
신체 부위					
전체적 외모	4.2±0.82 <sup>a</sup>	4.2±0.76 <sup>a</sup>	4.2±0.74 <sup>a</sup>	3.9±0.92 <sup>b</sup>	3.454*
체격	4.1±0.81 <sup>a</sup>	4.0±0.76 <sup>a</sup>	4.1±0.70 <sup>a</sup>	3.6±0.80 <sup>b</sup>	7.440***
키	4.2±0.94 <sup>a</sup>	4.3±0.74 <sup>a</sup>	4.2±0.96 <sup>a</sup>	3.9±1.06 <sup>b</sup>	3.578*
체중	3.8±0.92 <sup>a</sup>	3.5±0.85 <sup>b</sup>	3.3±0.86 <sup>b</sup>	3.4±0.82 <sup>b</sup>	6.499***
근육질정도	3.7±0.92 <sup>ab</sup>	3.7±0.84 <sup>ab</sup>	3.9±0.71 <sup>a</sup>	3.6±0.78 <sup>b</sup>	2.618
얼굴	4.2±0.84 <sup>a</sup>	4.1±0.71 <sup>a</sup>	4.0±1.03 <sup>a</sup>	3.7±0.92 <sup>b</sup>	7.049***
상체	4.0±0.86 <sup>a</sup>	3.9±0.69 <sup>a</sup>	3.9±0.78 <sup>a</sup>	3.5±0.84 <sup>b</sup>	7.462***
복부	4.0±0.82 <sup>ab</sup>	3.8±0.81 <sup>bc</sup>	4.1±0.80 <sup>a</sup>	3.5±0.81 <sup>c</sup>	8.278***
하체	3.6±0.86 <sup>ab</sup>	3.6±0.89 <sup>ab</sup>	3.8±0.86 <sup>a</sup>	3.4±0.77 <sup>b</sup>	2.702*
치아	3.8±0.92 <sup>a</sup>	3.7±0.74 <sup>a</sup>	3.7±0.92 <sup>a</sup>	3.4±0.80 <sup>b</sup>	4.360**
피부	3.9±0.94 <sup>a</sup>	3.6±0.83 <sup>ab</sup>	3.5±0.92 <sup>b</sup>	3.5±0.86 <sup>b</sup>	4.432**
머리카락	3.7±0.98 <sup>a</sup>	3.6±0.98 <sup>ab</sup>	3.3±1.09 <sup>b</sup>	3.4±0.77 <sup>b</sup>	3.553*

Duncan test=a > b > c.

\*p < .05; \*\*p < .01; \*\*\*p < .001.

비해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신체 부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남자대학생 중 양성성유형은 전체적 외모와 머리색, 머릿결 및 머리술 등 머리카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남성성유형은 상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라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신체 부위별 만족도는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양성성유형과 남성성유형은 체중을 제외한 신체 부위별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고, 여성성유형과 미분화유형도 외모, 체격, 키를 제외한 신체 부위별 만족도의 차이가 없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양성성유형과 미분화유형은 모든 신체 부위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어 양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모든 신체 부위에 만족도가 높았다(표 4).

## 고찰

성역할정체감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

체감유형에 따라 이상적 신체상은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정체감 4가지 유형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 신체상은 보통형이었으며, 미분화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에서의 두 번째 이상형은 상체발달형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남자의 경우 대부분 보통형이나 표준형을 이상형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이지현, 2004; 이경숙, 2004; 김시연, 2005; 서영주, 2007), 또한 하반신이 작고 상반신이 큰 체형인 역삼각형의 체형을 선호하여(이지현, 2004; 이경숙, 2004)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양성성, 여성성과 남성성유형은 일자형과 하지발달형을 이상적 신체상으로 제시한 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미분화유형은 보통형을 제외하고는 일자형, 상체발달형과 하지발달형을 큰 차이 없이 이상형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양성성, 여성성과 남성성유형의 성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남자대학생들은 미분화유형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기존의 남성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보통형의 체격에 최근에 남성성의 상징으로 떠오른 복근 등이 발달한 상체발달형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신체만족도는 신체존중감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자신의



<표 4> 성정체감에 따른 신체만족도

(N=323)

분류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F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총계	3.4±0.63 <sup>a</sup>	3.0±0.65 <sup>b</sup>	3.3±0.51 <sup>a</sup>	2.9±0.56 <sup>b</sup>					12.952***
신체 부위	전체적 외모	3.6±0.85 <sup>a</sup>	3.2±0.98 <sup>a</sup>	3.3±0.89 <sup>a</sup>	3.1±0.88 <sup>b</sup>				6.056**
	체격	3.4±0.96 <sup>a</sup>	3.1±1.03 <sup>a</sup>	3.3±0.76 <sup>a</sup>	2.9±0.80 <sup>b</sup>				7.138***
	키	3.1±1.08 <sup>a</sup>	3.2±1.14 <sup>a</sup>	2.8±1.09 <sup>a</sup>	2.8±0.99 <sup>b</sup>				3.200*
	체중	3.3±1.11 <sup>a</sup>	3.0±1.09 <sup>b</sup>	3.2±0.95 <sup>b</sup>	3.0±0.81 <sup>b</sup>				2.663*
	근육질 정도	3.3±0.96 <sup>a</sup>	2.7±1.06 <sup>b</sup>	3.4±0.92 <sup>a</sup>	2.8±0.86 <sup>b</sup>				11.129***
	얼굴	3.3±0.91 <sup>a</sup>	3.1±0.81 <sup>b</sup>	3.5±0.86 <sup>a</sup>	2.9±0.76 <sup>b</sup>				7.545***
	상체	3.4±0.92 <sup>a</sup>	3.0±0.86 <sup>b</sup>	3.6±0.81 <sup>a</sup>	3.0±0.80 <sup>b</sup>				9.423***
	복부	3.3±0.95 <sup>a</sup>	2.8±0.96 <sup>b</sup>	3.2±0.85 <sup>a</sup>	2.8±0.76 <sup>b</sup>				5.708**
	복부	3.3±0.90 <sup>a</sup>	2.9±0.92 <sup>c</sup>	3.4±0.87 <sup>ab</sup>	2.8±0.77 <sup>bc</sup>				10.326***
	치아	3.3±1.00 <sup>a</sup>	3.0±0.96 <sup>b</sup>	3.3±1.00 <sup>a</sup>	2.9±0.81 <sup>b</sup>				4.640**
	피부	3.3±1.02 <sup>a</sup>	3.1±1.03 <sup>ab</sup>	3.1±1.00 <sup>ab</sup>	2.9±0.87 <sup>b</sup>				3.701*
	머리카락	3.6±0.77 <sup>a</sup>	3.1±0.91 <sup>b</sup>	3.4±0.82 <sup>a</sup>	2.9±0.70 <sup>b</sup>				15.570***

Duncan test=a > b > c.

\*p < .05; \*\*p < .01; \*\*\*p < .001.

신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Koff et al., 1990). 이러한 신체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자신의 신체중요도와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양성성유형은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4가지 유형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중요도와 신체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성역할정체감은 시대와 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두었던 과거와 달리 점차 평등주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최근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을 분석한 이지현 (2004), 김정미 (2006), 성미혜 (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양성성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양성성 정체감이란 한 개인이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이며, 기능적인 동시에 친화적이고, 도구적인 동시에 표현적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예측된 것이다. 즉 양성성 개인은 고정 관념화된 성역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유능한 개인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Bem, 1974). 성 유형화된 사람은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만을 하는 데 비하여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함으로써 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미, 2006). 이에 최지성 (2002)은 남녀 모두가 현대사회의 한 인간으로 자신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급진적인 역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로서 양성성 (androgyn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세부적인 신체 부위별로 보았을 때 양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모든 신체 부위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근육질 정도와 하체 부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신체 부위를 미분화유형에 비해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김정미 (200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성성을 지닌 남자 고등학생 경우 외모관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남성을 신체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 신체적 유효성에 가치를 두고 키와 근육을 중요시 여겨 강조하고 있는데, 신체만족도 측면에서도 키 작은 남자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키

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정용희와 김창현, 2000; 임경복, 2008). 본 연구에서도 남자대학생은 특히 전체적 외모와 키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특히 양성성유형에서는 다른 신체 부위 만족도에 비해 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신체적 특성 중 키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남성성 정체감이란, 그 시대 그 사회의 고정 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남성 역할로 지칭되는 남성적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정체감 유형으로, 오윤희와 박영숙 (2006)은 남자대학생 중 남성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남성성유형은 4가지 성역할정체감 유형 중 비율이 가장 낮았다.

최지성 (2002)은 남성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에 남성성이 모든 요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신체중요도의 인식수준은 높았고, 여성성과 미분화유형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높아 남성성유형은 비교적 신체상에 대해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성 정체감이란 역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여성 역할로 지칭되는 여성적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정체감유형으로, 본 연구에서 여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신체중요도 인식수준은 높았으나 신체만족도는 양성성과 남성성유형에 비해 낮았다. 이는 이지현 (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성유형의 신체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분화 정체감은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 (김영희, 1989).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중 미분화유형은 양성성유형과 함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남성성유형보다는 양성성과 미분화유형이 대등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김정미, 2006; 성미혜, 2009)와 같았다. 윤진 등 (1989)은 미분화유형이 다른 분류유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유형으로 이는 우리 사회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2가지 특성을 분명하게 표출시키는 남자보다 두 특성 모두를 나타내지 않고 어느 중간 지대를 점유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사회적 압박이 덜 가해진다고 하여 숫자가 증가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분화유형은 신체의 중요도 인식 측면에서나 만족도 인식 측면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선행연구를 보면, 이지현 (2003)의 연구에서도 미분화유형의 신체만족도는 여성성유형보다는 높았지만 양성성, 남성성유형에 비해 낮았으

며, 남자고등학생 중 미분화유형이 외모관리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여 (김정미, 2006), 미분화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신체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의 양성성과 남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양상은 남학생의 왜곡된 신체상에 대한 상담이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건강에 위대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과 이상적 신체상,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7개 광역시, 경기, 충청, 강원, 전라 및 경상지역에 거주하는 남자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역할정체감유형은 정진경 (1990)의 한국형성역할검사지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를,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는 Cash (1990)의 MBSR (Multidimensional Body-Self Questionnaire)의 문항 중 이지현 (200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은 양성성과 미분화유형이 많았으며,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라 이상적 신체상은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역할정체감 4가지 유형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 신체상은 보통형이었으며, 미분화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에서의 두 번째 이상형은 상체발달형이었다. 즉, 미분화유형을 제외한 양성성, 여성성과 남성성유형의 성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남자대학생들은 아직까지는 기존의 남성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보통형의 체격과 상체발달형을 선호하고 있었다.

셋째, 신체중요도를 보면, 양성성, 여성성 및 남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신체중요도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신체 부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남자대학생은 전체적 외모와 키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특히 양성성유형은 근육질 정도와 하체 부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신체 부위를 미분화유형에 비해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넷째, 신체만족도를 보면, 양성성과 남성성유형은 여성

성과 미분화유형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신체 부위 별로 분석해 본 결과, 특히 양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모든 신체 부위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양성성과 남성성유형은 미분화유형에 비해 신체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아 신체상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반면에 미분화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신체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아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신체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성은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가 높으므로 남자청소년들에게 양성성이나 남성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분화유형을 대상으로는 신체만족도와 중요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안을 개발하는 등 남자대학생의 상담이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왜곡된 신체상으로 인해 잘못된 체격관리나 체중관리로 건강에 위대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간호중재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횡단적 일회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이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성역할정체감과 이상적 신체상, 신체중요도 및 만족도와 관계는 전향적 추적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공미혜, 이영숙 (2009).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외모인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11(2), 23-42.

김금숙 (2004).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과 우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시연 (2005). **일부 대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식행동, 체형인식도 및 체중조절 방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양진, 강혜원 (1996).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김영희 (1989).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김정미 (2006). **남자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외모관리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서영주 (2007). **대학생의 BMI에 따른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실태 조**

**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성미혜 (2009).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1), 73-80.

신혜숙, 백승남 (2003). 정상체중과 과체중 여대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지**, 33(3), 331-338.

오윤희, 박영숙 (2006).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가족의 집단성격 유형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1), 22-28.

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성역할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1)-남성 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 12-19.

이경숙 (2004). **대학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원옥 (2004). **여고생의 비만·신체에 대한 태도 및 체중조절 행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지현 (2004). **남자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임경복 (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6), 882-889.

장희순 (2003). **대중매체가 신체상의 지각과 상대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정용희, 김창현 (2000). 남자대학생의 신체외모의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460-476.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 132-160.

최지성 (2002). **남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일보 (2009년 2월 6일). **꽃미남의 기준 시대 따라 차이나네**. <http://news.hankooki.com/lpage/sports/200902/h2009020602370191970.htm>

황란희 (2009). 여대생의 섭식장애,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328-335.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Consult & Clin Psych*, 42, 155-162.

Cash, T. F., & Hicks, K. L. (1990). Being fat versus thinking fat: relationships with body image, eating behaviors, and well-being. *Cognitive Ther & Res*, 14(2), 327-341.

Jasmin, S., & Trygstad, L. N. (1979). *Behavioral concepts and the nursing process*. London: Mosby Compo.

Koff, E., Rierdan, J., & Stubbs, M. R. (1990). Gender, body image, and self-concept in early adolescence. *J Early Adolesc*, 10, 56-68.